

(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5·18 44주년 기념 공연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5월호

오라토리오에 스며드는 '오월의 빛'

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관현악 서곡 '아내의 노래' 등 14곡

현대의 가장 큰 아픔이자 슬픔인 '광주5·18 민중항쟁'이 올해로 44주년을 맞는다. 그날의 아픔을 재현하는 다양한 무대가 예정돼 있는데, 연기나 무대장치 없이 오롯이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5·18민중항쟁 44주년 기념 오라토리오 공연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가 그것.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17~18세기 성행한 '오라토리오'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곁들여 채워진다.

일반적으로 오라토리오는 성서에 입각한 종교적 내용을 다룬다. 잘 알려진 작품으로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사계' 등이 있다. 무엇보다 무대장치나 배우들의 연기가 없어 가사에 집중하기 좋은 장르다.

이번 공연은 고(故) 문병관 시인의 5·18 관련 시편에 작곡가 김성훈이 합창과 관현악 반주를 붙인 총 14곡의 오라토리오로 구성된다. 예술감독은 기민정(이 말았다.

서막은 관현악 서곡 '아내의 노래'로 연다. 이어 압제의 세월엔 희생당한 망자들의 넋을 '꽃밭'에 빚낸 작품 '아아 광주여 5월이여 그날의 꽃밭이여'가 울려 퍼진다.

'저는 그냥 죽었어요', '아, 그날만은', '광주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등 세 곡은 각각 당시 희생자로 대변되는 '소년'과 '구두땀', '남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부른다. 세 명의 솔리스트들은 모두 40여년 전 선회했던 무고한 광주 시민을 표상한다.

그중 어린 소년의 죽음을 극적 시어로 묘사해 광주 민중항쟁의 비극을 드러내는 제3곡('저는 그냥 죽었어요')은 주목받는 작품이다. 보이소프라노 한재연(살



5·18 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는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가 오는 5월 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지난해 선보인 공연 장면. <(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제공>

레시오초3)이 노래할 예정.

한편 공연의 특징은 초입에서 광주의 비극을 노래하고 말미에서 '부활'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 있다. '전라도 빠주기', '부활의 노래'를 비롯해 '아아 광주여 5월이여 그날의 일제감이어' 등은 5·18에 깃든 신념과 의기, 재생과 부활의 바람을 담아낸 곡들이다.

희생자를 위무하는 칸타타(소규모 오라토리오)도 울려 퍼진다. 사련곡(思戀曲)이라는 부제를 갖는 '감강한 어둠'이 바로 그것. 이의 연인의 2중창을 표방하는 '누가 우리를... 일어나거라', '결연의 의지를 드러내는'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도 이목을 끄는 작품들이다.

민주주의와 광주를 표상하는 '무등산'을 모티브로 한 독창 '무등산', '무등을 향하여'도 레퍼토리에 있다. 어두웠던 역사에서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담았다.

대단원의 막은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가 장식한다. 이 노래는 빛고을 광주야말로 평화의 기수이며, 민주주의를 이룩해내는 선봉에서 있다는 메시지를 환기한다.

대규모 지역 합창단들의 참여도 주목할만한 점.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반주)와 광양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여수시립합창단 등이 무대를 빛낸다.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졸업을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 외래교수로 있는 김선희(소프라노),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백재은(메조소프라노), 상명대 음악학부 교수로 있는 정의근(테너)이 출연하며 오페라 전문가수 김종표(바리톤)는 솔리스트로 독창, 이중창 등을 맡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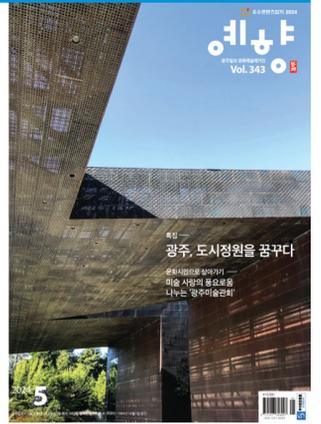
기민정 예술감독은 "5·18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은 세대로서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데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무대가 많은 관객들에게 광주의 아픈 역사를 반추하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연출 기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지만 중요한 것은 '오라토리오'를 통해 희생자들의 아픔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석 무료, 티켓 현장 발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연남



도시를 푸르게 '광주, 도시정원을 꿈꾸다' 문화 시민으로 살아가기 '광주미술관회'

신록의 계절 5월은 자연이 주는 선물로 가득하다. 산과 들로 떠나야만 자연을 만나는 건 아니다. 도심 곳곳의 정원들은 지체가는 현대인들에게 한줄기 샘물이 되기도 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5월호는 '광주, 도시정원을 꿈꾸다'로 준비했다. 자그마한 도시 정원은 골목길과 동네를, 나아가 한 도시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광주 '휴심정' 등 도심 속에 자리한 도시정원은 회색 콘크리트 숲에서 생활하는 도시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북구 중외공원에는 '아시아예술정원'이 조성되고,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 '해남산이정원'이 5월 정식 개장한다.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손꼽히는 순천의 노후수도 들여본다.

'여행 초대석' 주인공은 소설가 윤홍길이다. 전성기로 나가기 전 몸엔 문신을 새기는 '부령자자' (赴嶺刺字) 풍습은 한민족 특유의 귀소본능에서 비롯됐다. 윤홍길 작가가 일제강점기에 시대의 격랑을 헤쳐나가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장편소설 '문신' (전 5권)을 최근 완간했다. 구상에서 집필, 완간까지 30여 년이 걸린 장편소설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물 '문화시민으로 살아가기'도 흥미롭다. 21세기는 '문화'가 주인이 되는 시대다. 문화를 즐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도시는 활력을 잃는다. 더 이상 문화는 특정 소수자가 누리는 사치가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조금씩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한 문화 시민이 될 수 있다. 문화도시의 주인공을

꿈꾸며 다양한 현장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이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광주미술관회'다.

예향 40주년과 함께하는 남도투어는 전남의 유배지를 둘러보는 시간이다. 1801년, 나주 율정 주막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정약전·약용 형제는 각각 신안 흑산도와 울출산 아래 강진으로 기약 없는 유배길을 떠난다. 1851년, 조선 말기 화가였던 조희룡은 예송논쟁의 여파로 신안 입자도에 유배조치된다. 1375년, 정도전은 원나라 사신의 마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쫓겨나 3년간 나주에서 유배생활을 한다. 세월이 흘러 유배의 그늘에서 벗어나 문화가 꽃피는 시절이 왔다. 남도의 유배지를 찾아 길을 떠나본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 여행지는 '김성여행 일번지' 강진이다. 영랑생가에 모란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백운동 원림과 다산초당·백련사 오솔길, 기우도, 강진만 생태공원에 도착 시그러움이 넘쳐난다. 마량 놀두수산시장과 병영 '불굴광파', '반값 강진여행' 프로그램도 지역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다산이 즐겨먹었다는 전복볶음고추장과 여주·살구리 등 가공식품도 기대된다.

이외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하는 '호남 서화가 열전' 의재 허백련, 의병장 형제 잃은 울분 삼키며 '무등'의 품에 안긴 광주 풍암정 이야기, 과학을 노래하는 천문학자 이명현과 천만 영화 '파묘' 장재현 감독과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영호남 '예술적 만남'

광주 황토회·대구 이상회,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본관

예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다는 데 있다. 작가는 어디서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성과물을 감상할 수 있는 세상이다. 광주와 대구, 각기 지역은 다르지만 예술을 매개로 창작활동을 공유하고 전시를 여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 황토회(회장 고희자)와 대구 이상회(회장 최경수)가 주인공.

황토회와 이상회가 영호남 교류전 일환으로 제55회 연합 전시회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류전은 모두 30여 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볼 수 있다.

광주에서는 강근선, 고영준, 김선화, 김수복, 김용근, 김혜자, 박석규, 박일광, 신동연, 신동훈, 오영수, 윤정규, 이정표, 이현자, 정은기, 정철, 추순정, 황영일 작가가 참여했다.

대구에서는 구교원, 김도환, 김성향, 방윤주, 배기찬, 윤상천, 이정애, 이지영, 최경수, 최은애, 최정숙 작가의 작품을 출품했다.

황토회 김선화 작가의 '회심(灰心)'은 오늘의 세대와 빛다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회심'은 "제와 같이 욕심이 없고 고요하여 외부 사물의 유혹을 받지 않고, 모든 욕망, 정열, 의기 따위가 일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윤상천 작 'A son and a father'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모든 것을 털어내고 빈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두 마리의 새는 달관과 빈 마음을 사유하게 한다. 새는 주인공이 아닌 마치 배경처럼 그곳에 앉아 있다.

이상회 윤상천 작가의 'A son and a father'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초경화한다. 휴대폰을 두 손에 쥔 부자는 여느 아버지와 아들 사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아들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향해 그만의 언어로 말을 하고 아버지는 멧떡은 듯 머리를 굽



김선화 작 '회심(灰心)'

적이고 있다.

한편 고희자 황토회 회장은 "이번 전시는 회원 저마다 독특한 화풍과 기법으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은 다르지만 두 단체의 특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경수 이상회 회장은 "각기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성을 지닌 단체의 작품 활동의 현주소와 예술적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며 "연합전을 매개로 앞으로의 창작의 결실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월에 떠나는 드라마·영화 속 광주 투어

5·18 민주화운동과 드라마 '이두나!', 영화 '파묘' 등을 주요 테마로 하는 광주 관광 상품 출시돼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지난 30일 "5·18민주화운동을 주요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 '오월 시네(Cine)로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월 시네(Cine)로드'는 당일 버스 여행상품으로 광주에서 촬영한 드라마, 영화 배경지를 직접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청역에서 오전 6시 30분 출발해 드라마 '이두나!', '도시남녀의 사랑법' 등의 촬영지인 양림 근대역사문화마을을 방

문하고, 영화 '화려한 휴가', '26년', '파묘' 등을 촬영한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이어 전일빌딩245까지 둘러보는 일정이다. 투어 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설 등도 진행된다.

오월 시네로드 상품은 5월에만 특가 2만 4900원에 판매되며, 6월부터는 4만 3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상품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며 여행상품 공동개발자인 ㈜여행스케치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1회 최소 25명 이상 모객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